

도시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친자연적 생태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이 사업은 애초 대통령정책사업으로 채택돼 관 주도의 도시 계획적 관점에서 건설될 계획이었으나 의식 있는 건축가들과 출판인들이 사업 주도권을 확보,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는 생태도시로 조성하게 됐다.

┆ 총 건축 소요비용만 1조 원이 드는 이 대공사는 1,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출판업체 위주의 1단계 23만 9,000평 단지는 건축비 3,800억 원을 들여 2004년까지 완공하고 150동 600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이다. 현재 한길사와 동녘, 보진재 등 10여 개 출판사와 유통업체가 이미 입주를 마쳤고 창작과비평사, 민음사, 열화당, 돌베개, 범우사, 민중서림, 지식산업사 등 국내의 대표적인 단행본 출판사 160여 업체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일부 영상업체도 포함될 2단계 사업은 현재 계속 모델을 구상중이다. 여기에는 12개 영화관과 생활패션 업체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까지 완공되면 유동인구까지 포함해 하루 약 5만 명의 인구가 출판단지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 파주출판도시는, 많은 건축가들과 출판인들이 힘을 모아서 만들고 있는 대안적이고, 실험적인 도시라는 점에서 기존의 서울 위성도시 건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철학을 보여준다. 파주출판도시는 알려진 대로 단순한 도시 건설을 뛰어넘어 인근의 헤이리아트밸리와 함께 친자연적인 공동체, 새로운 삶의 공간을 모색하며 추진중인 문화타운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건축의 과정에서, '자연과 건축주, 건축가'가 서로 유기적으로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파주출판도시 건설만이 지닌 모습이다.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이사장직을 맡아 새로운 꿈의 도시 건설을 총지휘하고 있는 열화당 이기웅 사장은 파주출판도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현실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한다.

“출판단지의 기본적인 목적은 출판계의 물류비용을 절감하자는



┆ 바람직한 도시건축의 모델을 우리는 다행히 멀지 않은 현실 공간에서 목격할 수 있다. 건축과 출판의 행복한 꿈을 실현하는 거대한 유토피아가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문발리 습지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그것이다. 건축계와 출판계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성사된 이 프로젝트를 출판인들과 건축가들은 “위대한 계약”이라 칭한 바 있다. 그것은 단순한 수사를 넘어 이 사업이 갖는 기념비적인 의미를 잘 설명하는 말이다.

┆ 총면적 48만 평의 부지 위에 출판시설과 주거시설, 위락시설이 조성돼 종합적인 자생형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파주출판

# 자연친화와 인간중심의 휴머니티 구현, 우리나라 첫 생태도시 파주 북시티

데 있습니다. 출판기획은 단지 외부에서 해도 무방하지만 인쇄, 제본, 보관 등은 모여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반 시설들이 모여 있으면 교통비가 줄어드는 등 책제작의 효율적 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 출판도시 건설이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은 이 건설이 공동성과 생태도시라는 두 가지 의미를 좇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도시 프로젝트에는 10명의 외국건축가를 포함, 총 40명 이상의 건축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건축을 총괄하고 있는 건축 코디네이터는 승효상 씨(51)다. 그 외에도 김원 씨(광장건축), 민현식 씨(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일훈 씨(후리건축), 조성룡 씨(조성룡도시건축), 정기용 씨(정기용건축연구소), 이종호 씨(메타건축) 등 새로운 건축문법을 보여주는 소장 건축가들이 섹터 아키텍트로 참여하고 있다.

건축물의 설계와 도시계획의 코디를 하면서 실무자들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자연친화적 인간중심의 휴머니티 구현이다. 일단 넉넉한 대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탓에 건축물을 수평적으로 확대하고 높이를 최고 15미터로 제한할 수 있었다. 외장재 또한 오래 가는 벽돌이나 노출콘크리트를 택했다. 주위의 심학산이나 갈대샨강을 해치지 않도록 신경을 썼음은 물론이다. 빗물을 정화해서 도시 외곽으로 샨강을 흐르게 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퍼주출판도시 모델을 2002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들고 가서 전시하기도 한 코디네이터 승효상 씨는 자신들의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지금까지의 도시건설은 토지이용계획이나 동선계획, 교통계획, 인구밀도 계획 등등에 기반해 토지를 어떻게 착취하고 이용하고 나눌 것인가 하는 자본의 분배과정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다지 없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런 도시계획의 교과서적인 적용이 이제는 ‘공동체 만들기’ 라는

가 ‘맑은 하늘보기’ 라는가 하는 류의 단어로 바뀌어야 새로운 도시유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그에 의하면 건축은 오브제 혹은 상징이 아니라, 하나의 풍경처럼 보여야 한다. 소위 서구 건축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건축적 풍경 architectural landscape을 우리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건축도 자연과의 어울림을 추구해야 하며 건축과 우리들의 사는 모습이 어울리는 하나의 배경으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퍼주출판도시에서 창조되는 건축들은 상징이나, 기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의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밝힌다.

┌ 퍼주출판도시는 새로운 시대의 건축이 꿈꾸는 이상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기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실험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그것이 다름 아닌 출판도시라는 측면에서 출판계로서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프로젝트다. 소기의 계획대로 퍼주출판도시가 유종의미를 거두며 훌륭한 도시 건축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김도연 기자

